

전국 최강 넘어 세계 최강 꿈꾼다

스포츠 포커스

전국체전 여고부 단체 종합우승 4연패 일군 최 규 동 광주체고 체조감독

“그래, 됐어 거기서 밀고, 돌리고, 돌리고~착지. 됐다!”

지난 11일 제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호남대학교 체조경기장, 개인 세부종목에 출전한 박은경(광주체고)의 이단평행봉 연기가 끝나자 진땀을 흘리며 마음 졸였던 최규동(47) 광주체고 여고부 감독이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박은경은 최감독의 기대대로 전국체전 처녀 출전에서 4관왕의 위업을 이룬다. 마무와 평준대에서

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조를 접했고,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조대부중 1학년때 체조에 입문하게 된다.

몸이 날래고 순발력이 뛰어났던 그는 입문 7개월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해 단체 3위에 올라 ‘신동’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다재다능 했던 최감독은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3때인 1972년 제1회 소년체전 개인종합 3위, 조대부고 3학년때 최우수선수상 수상외에 특별한 것 없

다, 속삭이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비밀비재하다. 선수들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호흡하고 싶기 때문이다. 최감독은 “화려하지 않은 선수생활을 했지만 제자들 만큼은 최고의 선수를 만들고 싶었다”며 “내 젊음과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고 선수들이 믿고 따라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체조에 대한 열정은 1999년 제28회 소년체전에서부터 2005년 34회 소년체전까지 금40개, 은 22개, 동 28개를 획득했으며 전국규모대회 금 150개, 은 80개, 동 70개를 획득하는 등 대회에 나섰다 하면 우승하는 ‘우승 제조기’가 된다.

특히 그는 제26회 아틀란타올림픽 은메달, 아시안 게임 2연패,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체조계의 간판스타 여흥철을 초등시절 발굴해 키워내는 등 지도자로서 역량을 국내·외 체조계에 떨치게 된다.

또한 1999년 제28회 소년체전에서 광주·전남 체조역대 사상 최초 초등부 단체종합우승을 시작으로 개인 2관왕 3명, 2000년 제29회 소년체전 개인 4관왕, 2002년 남녀 중등부 단체종합 2연패, 여자동일 종목 개인 3연패, 2003년 여자 중등부 단체종합 소년체전 3연패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승 금자탑을 쌓아오며 비인기 종목인 광주체조를 전국최강에 올려 왔다.

이외에 2006~2007년 전국규모대회 전 대회 우승, 광주체고 여자고등부 전 선수가 대표선수로 선발돼 국내체조를 이끌어 가는 팀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최 감독은 “은경이가 대학에 가서 올림픽 대표로 출전,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도자로서 목표다”고 올림픽 메달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체조코치 7년, 중등교사 26년 동안 뒤 돌아 보지 않고 ‘체조 사랑’ 한 길을 달려온 최감독의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도약이 시작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체조 간판스타 여흥철 선수 발굴 지도 10여년간 전국대회 금 150개 ‘우승제조기’ 베이징 올림픽 금 따면 지도자 인생 완결판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개최지에서 전관왕에 오르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는 판단에 이의신청을 하려다가 포기했다.

‘전국체전 여고부 단체종합 우승 4연패’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선수들과 쉬지 않고 달려온 최감독의 값진 수확이었다.

특히 이들 여고부 선수들은 3년전 소년체전때 금메달을 1개도 따내지 못했던 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으니 최감독으로서는 더욱 뜻깊은 4연패 금자탑이었다.

체조계에서 ‘체조에 미친 사나이’로 통하는 최감독의 선수생활은 화려하지 않았다.

낙천적이고 놀기 좋아하는 최감독은 사춘형이 체조선

는 선수생활을 보낸다.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사회체육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1975년 초등부 체조코치를 거쳐 1976년 조선대학교 여자 중학교 코치로 부임한 최감독은 이때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지도자로서 최감독의 인생은 이때부터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선수시절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스러움을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나옴과 늦게 들어야 한다’는 지도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훈련시간에 집중하도록 가르쳤다. 운동할 때만 큰 ‘호랑이’였다’ 계몽을 피우거나 말쑥은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서 체조에 미쳐가자 선수들과 그의 체조 사랑에 같이 동화해 갔다.

지금도 광주체육고 최감독 방에는 한켠에 침대가 있



왼쪽부터 최규동감독, 박철희 코치, 최민주, 이슬, 김효빈, 배물음, 전담비 선수, 정애리코치, 주광성 광주체조협회전무이사.



최규동 감독이 선수들의 동작을 보조하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사랑방 장성군·읍 영천리 장성농협앞 국내산 생삼겹살 3,800원 한우 등심 500g 9,800원 ☎(061)395-3880	거평엔지니어링 금호동 마파루체고사거리 한신빌딩3층 일반건설(토목, 도시계획, 설계, 조경, 일반총괄) 대표 최경순 ☎(062)681-2300	(주)사랑의손 쌍촌동 상일고 건너편 효소절식, 체질개선, 다이어트 만나골드, 만나, 건생, 웰본 ☎(062)371-3326	김현철공인중개사 봉선동 봉선초교앞 모이상가 APT, 상가, 토지, 분양권 매매전문 대표 김현철 ☎(062)419-8924	초가집 용봉동 택지개발지구내 광주은행뒤 단체손님환영 ☎(062)512-1179	진짜부 염주동 우성아파트 1차상가 지하 중화요리 정반짜장전문 ☎(062)376-7998	
반석정보통신 양산동 양산주공근거리편 종합 휴대폰매장 대표 김동섭 ☎(062)512-0630	유달이용원 중앙동 동부센트럴빌딩입구 이용업 대표 김정길 ☎(062)654-1529	상무유봉 쌍촌동 신천힐탑APT앞 유업업 대표 정상훈 ☎(062)375-9976	강경토급젓갈 계림동 구시침터편 갈치숙젓갈, 멸치젓갈, 새우젓, 어젓 저렴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62)223-1141	고려건강원 용봉동 용봉시장앞 핵심소세지, 장어, 생이, 포도, 호박등기타 대표 김용모 ☎(062)525-5147	서방골곰탕 우산동 무등장래식점앞 생고기, 육회, 생비빔밥, 곰탕 대표 김용모 ☎(062)529-3332		
보은상사 나주시 금성동 47-9번지 각종 가스기구 도소매 '런,이 A/S 전문점' ☎(061)332-7900	삼보건재 장성군·읍 영천리 전방제재소앞 각종목재, 합판, 칠물 취급전문 대표 김복열 ☎(061)393-6454	셀자자동차회복원 양산동 양산저수지앞 큰도로변 가스제거, 흡진복원, 경정비, 범퍼재생 부분도색, 유리막코팅, 사고보험처리 ☎(062)365-7080	인송산악회 중동 예술의거리 왕복교앞연 3층 신기하의원 추모 사업회 대표 김승덕 ☎(062)233-8868	호남방부동산·경매컨설팅 화정동 염주사거리 모이타워앞 법원경매, 지목목적, 광주골드지사 대표 김창수 ☎(062)383-3007	세정갑비 재동 새마을시장 2번지(중동) 중앙시장 당첨식, 파자비, 신발, 의류, 생활용품 전문 대표 안찬선 ☎(062)371-9592	전주소주방 양림동 주공@신속공사전문 전어구이, 연탄술집, 구이전문점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10)7570-2833	수연정 서방사거리에서 안보호관 방화30m정도 소 골창전골 단체손님환영 ☎(062)521-0488
영암스포츠맛사지 영암군 서남리 헬스장1층 목, 허리디스크 초·중·고 척추추출중 스포츠 맛사지 ☎(061)471-9629	세기다방 장성군·읍 한국농공공사영문앞 관석당2층 여중임원수시모집, 농기계, 선불기, 복사기, 세탁기 차 주문시 신속배달 ☎(061)393-5553	백악관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SK주유소앞 생고기, 갈비살, 꽃등심, 육회, 단양, 새우젓, 갈비 면회식 200석완비, 단체예약환영 ☎(062)575-9949	꿈앤갤러리 중동 예술의거리 중앙초등학교앞 동양화, 국·구화 (최고가매입) 대표 최기섭 ☎(062)232-2743	동남부동산컨설팅 차림동 266-41번지 토지, APT, 상가 매매 및 임대전문 대표 박환주 ☎(062)371-9773	비전공인중개사사무소 차림동 상무지구 우리병원앞2층 부동산의 모든 것, 성실상담, 책임중개 공인중개사 김유순 ☎(062)654-5302	양삼구이 양림동 양림동사무소입구 오뎀, 향정살, 연탄구이, 미향구이 전통을 지향하는 주인장의 손맛! ☎(062)676-3839	가스용품마트(가나에너지) 혹성동 명진주유소에서 입국약30m지점 각종 가스용품 및 가스부속일체 대표 한재진 ☎(062)952-1771
등양의료기 영암군·읍 남종리 61-3번지 (주)엘티토산코리아 전남총판 창국키티토산, 클라겐, 의료기, 아쿠아, 메트 ☎(061)473-6644	법무사 박의준사무소 장성군·읍 영천리 읍사무소앞 소장작성, 등기, 호적, 경매 공탁, 가압류기처분 ☎(061)392-5119	가마솥냄새시골국밥 중앙동 동부센트럴빌딩입구 내장, 머리, 순대국밥 24,000원 대표 김동현 ☎(062)682-5654	(주)다산플러스광주지점 쌍촌동 호남대학교입구 로얄빌딩7층 전립선, 요실금의 장애를 극복할수 있는 획기적인 건강식품 판매 및 상담전문 ☎(062)527-5789	본가 나주곰탕 봉선동 광주은행사거리 재석초교중간 나주곰탕 전문점 대표 강승룡 ☎(062)653-5532	삼각공인중개사 삼각동 삼각그린 상가내 토지, APT, 상가 매매 및 임대전문 대표 김미순 ☎(062)412-4585	치갯집양념통닭 양림동 학남초등학교정문앞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생맥주, 즉석배달 전통을 지향하는 양념통 치갯집양념통닭 ☎(062)671-3329	구진포민들장어 봉선동 리민삼거리 덕산@맞은편 포리에서도 포리를 흔든다. 싱싱한 그릇! 대표 박경자 ☎(062)673-8106